

은혜의 기회를 저버린 벨릭스

행24 : 24-27

이 명 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벨릭스의 유부녀 유인

벨릭스는 로마인 유대 총독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동거하는 그의 처 두루실나는 벨릭스의 본처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자기의 처를 삼은 것이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두루실나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핍박하여 칼로 죽이고(행12 : 1, 2),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벨레에게 먹혀죽은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딸로 6세에 부친을 사별하고 벨릭스와 동거하는 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20세였다. 두루실나는 원래 아지사스라는 귀족에게 출가하였는데,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평판이 높은 미인이었다. 두루실나를 애모한 벨릭스는 매

수한 마술사 시몬에게 두루실나의 부부 사이를 이간하게 하고 결국 서로 이혼하게 한다. 그리고 벨릭스는 두루실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다. 벨릭스는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인간의 낙원 같은 가정을 파멸한 자이며, 남의 아내를 가로챈 죄인이다. 이것은 법률로나 도덕이나 사회가 용납치 못할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죄악이다. 이러한 죄악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연애(戀愛)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죄악은 벨릭스와 두루실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소위 연애라는 더럽고 추악한 사

조로 신성한 청년 남녀의 정조를 깨뜨리는 일은 번번히 있는 바이저니와, 유부녀와도 불결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일도 희한한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리시마다게오(有島武郎)는 유부녀와 연애하여 정사(情死) 함으로 그 가정에 큰 풍파를 일으켰다. 이 아리시마는 청년 문학가로 유명했고, 또한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둘째, 미신(迷信)이다. 백년해로를 언약한 두루실나 부부사이에 이혼 문제가 제기된 것은 마술사 시몬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무식한 부녀자들 가운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요사스런 말을 믿어 부부가 서로 나뉘어 지는 일이 흔이 있다. 즉 점쟁이들은 말하기를 그 남편과 끝까지 동거하면 죽느니, 가난하게 된다는니, 자식을 못 낳는다는니, 늙어서 기구하게 된다는니 하는 요사스런 말에 미혹되어 앞길을 망치는 일이 참으로 적지 않다. 어느 한 늙은 부인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개가하여 자기의 정조를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일도 있거니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음욕과 미신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다.

벨릭스의 도를 듣는 정신과 동기

행24:22에 보면 “벨릭스가 그 아내 두루실나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하였는데, 벨릭스는 도(말씀)를 진정 듣고자 함도 아니고, 도(말씀)를 사모함도 아니고, 영생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종교를 믿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즉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26). 이것이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정신이었다. 벨릭스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정신을 분석하면, 첫째, 외식이다. 목적과 정신은 다른데 두고 불의한 동기로 설교를 듣고자 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겉으로는 도(말씀)를 듣는 것 같지만 정신의 방향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설교에 마음을 기울려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나 예배드릴 때에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신령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둘째, 돈을 탐하는 정신이다. 로마

정부에서는 관리가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철저히 금하였으나 벨릭스와 같은 탐관오리(貪官汚吏)가 있어 뇌물로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은밀한 중에 많이 있었다. 각설하고, 벨릭스의 도(말씀)를 듣고자 하는 목적은 돈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말씀)를 듣는 것이 모두가 순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도이는 목적과 정신은形形色색일 것이다. 내가 듣기는, 어떤 청년은 음악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혹은 이성간에 교제를 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상식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혹은 교회당을 일종의 사교장으로 알고 출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금을 통하여 교회 안에는 벨릭스와 같은 무리들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바울의 설교의 강령

벨릭스의 내면생활과 도(말씀)를 듣고자 하는 정신을 헤아린 바울은 인생의 큰 문제가 되는 현재와 장래, 즉 도덕과 종교 문제를 강직하게 설교하였다.

1) 도덕적인 관념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공연히 우환(迂濶)하게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나 사상 문제가 아닌

인간생활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제로써 단도직입적으로 그 양심에 호소하였다. 즉 벨릭스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직하게, 비굴함이 없이, 정직하게, 추호도 아첨이나 아부하는 비열한 언사를 쓰지 않은 것이 참으로 설교자의 모범이 된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관념은 타인에게 대하여, 자기에게 대한 것으로 구분이 된다.

2) 공의 도덕에는 남에게 대한 의무와 자기에게 대한 의무가 있다. 즉 공의라 함은 남에게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집권자가 국민에게 대하여서나 개인이 개인에게 대하여서는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가나 보통 시민간에 공의의 행함을 보기 힘든 형편이다. 요즈음 신문으로 보도하는 마에 의하면, 어떤 육군 장성이 무슨 불의한 사건이 폭로되어 입선이 되었는지, 모 수상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지, 모 지사는 어떠한지 하는 기사로 세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모두 이면에 공도와 의리에 위반되는 일이 있음을 말해 준다.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있으면 그대로 다스릴 것이요, 무죄라면 석방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벨릭스는 돈을 받고 석방코자 하였으니 심히 큰 불의이다. 많은 사람

들이 분 관계로 분의를 행하고,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나, 그 결과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히 공의를 실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타인에게 대한 의무는 공의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의무는 절제이다. 사람이 정욕의 세계에 살아가매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절제는 자기를 잘 조종하는 것이다. 이 절제가 없으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바울은 성결한 사람이면서, 평생을 절제 즉 극기의 생활을 하였거늘(고전 9:27) 하물며 우리들이겠는가? 벨릭스는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 동거하는 자이나, 절제의 도에서 크게 어긋난 사람이다. 우리도 범사 절제가 있어야 한다. 재물에나, 이성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언어에나, **교제**에 이르기 까지이다. 요스윌 청년 남녀간에 교제하는 법이 너무 무례하여 풍기 문란한 일이 많은 중에 특별히, 예수의 사랑과 자유를 빙자하여 **교회** 내에서 너무 심한 듯하니 주의할 것이다.

3) 장래의 심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누구나 도덕에 대하여는 수긍하여, 혹은 **함께 행**하되 종교 문제 즉 장래 심판에 대하여

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한번 죽고 그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히19:27) 하였으니 왕후 재상과 하신의 구별이 없이, 또한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을 막론하고, 필경은 한번씩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생 소행을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는 법은 세 방법이 있다(유대식 15-).

첫째, 행위이다. 사람이 평생에 무슨 행위를 하였든지 그 행사가 하나님의 책에(제20:12) 명백히 기록 되었다가 끝 날 심판대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둘째, 언어이다. 말이란 한번 하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녹음기에 음성이 입력되어 있다가 후에 그대로 나타남과 같이, 사람이 평생에 말한 의롭고, 의롭지 못한 말이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셋째, 심사(心思)이다. 세상의 범람은 행위가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가 행위로 나타내기 전에 그 마음에 무슨 불의, 불결한 사상이 있는지 그것을 심판하신다(마5:28, 히14:15).

바울의 설교의 반응

- 1) 벨릭스가 두려워함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그대로 말할 때에 벨릭스는 양심에 크게 자극을 받아 두려워하였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와 다름이 없다. 청중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든가 핍박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는 곧 성령의 권능으로 한 설교이다.
- 2) 벨릭스 구원의 기회를 버림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무한한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순종하여 회

개하지 않고 스스로 피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고후6:2). 벨릭스는 기원 79년에 이탈리아 분화산이 폭발할 때에 죽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들었던들’ 하는 후회를 가슴에 품고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다. 40

(본 설교는 이명직 목사께서 1926년 9월에 행한 것으로 이를 본지 발행인 홍순근목사가 현대적인 어법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 편집자 주)

社告

작은 시도 소망이 여기지 않습니다

낙동강오염 소식을 들으면서, 활천이 맑고 시원스레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활천이 우리의 영혼에 산샘으로, 생명샘으로 흐르기 위해서 독자 여러분의 가슴 깊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 지난해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신 글은? / • 지난해를 읽으면서 아쉽게 느낀점은? / • 다음부터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추천하고 싶은 필자나 주제는?
위 항목에 따라 뜻을 전해주시면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